

해리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 구조 특성*

황 성 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해리는 본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의식 경험이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정신의 조직화가 풀어지고 흩어지는 해리 현상의 내적, 외적 원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해리 증상의 외적 원인으로는 인간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외상 경험을 가정하였고, 내적 원인으로는 자기 복잡성이 높아서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이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상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 관련 강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해리 경험 척도를 실시하여, 해리 경향이 높은 집단(해리 성향 집단)과 낮은 집단(통제 집단)을 각각 30명씩 선별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초기 외상 척도를 실시하였고, 자기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측면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해리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다양한 초기 외상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상을 제외한 정서 외상, 일반 외상, 성적 외상 등에서 해리 경향 집단의 경험 빈도가 더 높아서, 해리 증상의 외적 원인으로 외상이 작용한다는 예측을 지지해 주었다. 한편, 자기의 구조적 측정치에서는 해리 경향 집단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자기 복잡성을 보였다. 그런데 해리 집단은 자신들의 높은 자기 복잡성을 조화롭지 못하고, 무질서한 흐트러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해리 집단의 높은 자기복잡성은 통합성이 떨어지는 자기의 과잉 분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산적인 자기 구조가 해리 현상의 내적 원인임을 시사한다. 해리 집단의 높은 자기 복잡성은 외상의 충격을 자아의 일부로 국한시켜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컨대, 해리는 외상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자기 구조를 과잉 분화시키고 그 대가로 통합성을 희생하고 파편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해리, 외상, 자기 복잡성, 자기구조, 분리

* 이 논문은 2008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하였음(HYCU-2008-001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성훈 /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Fax : 02-2290-0601 / E-mail : thinkgrey@hanmail.net

일상생활에서 가끔 “멍하니 있다.”,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다.”, “깜박하면서 내가 하고 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쓰곤 한다. 정신의 주인(主人)은 ‘나’인데, 나로부터 정신이 잠깐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주관적 경험을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신 병리의 용어로는 해리(解離; dissociation)라고 한다.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풀어서(解) 흩어진다(離).”, “연합(association)이 끊어진다(dissociation).”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 혹은 살아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해리는 어떤 이유에서 정신을 붙잡아주는 연결 끈을 살짝 놓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해리의 특징과 원인

이렇듯 해리는 ‘자기 자신, 시간, 주위 환경에 대한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으로서 정상인들도 간혹 경험하곤 한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분류 체계(Diagnostic Statistical Manuals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이하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 따르면, 해리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해리성 기억 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해리성 둔주(dissociative fugue), 이인감 장애(depersonalization disorder) 등으로 나뉜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흔히 다중 인격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몸 안에 분리 독립된 서너 개의 내적 인격이 있는 경우이다. 해리성 기억 상실은 심인성 기억 상실증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중요한 과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리성 둔주는 의식이

해리된 상태에서 일상적 주거지를 떠나 방황하거나 예정에 없는 여행을 하며 이에 대한 기억상실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외상의 작용이다. 외상이란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으로서, 극심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동반하는 경험인데(DSM-IV, 1994), 해리는 외상 사건에 대한 일종의 대처로서, 의식이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회피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Putnam, Guroff, Silberman, Barban 및 Post(1986)의 사례 보고에 의하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86%가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75%가 반복되는 신체적 학대를, 68%는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모두 받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45%는 아동기에 폭력적인 죽음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단지 3%만이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없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외상이나 학대와 같이 저항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한 자기 방어중 하나로 의식의 단절과 정신의 분리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 증상이 유래하는 내적 구조의 탐색

외상이 의식의 해리와 정신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교적 확립된 이론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해리 증상의 내적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력한 외부적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이에 대한 대처로서 억압이나 투사와 같은 다른 방어 기제를 두고 굳이 해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별되는 내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Hilgard(1977)는 해리와 억압을 구별하였는데,

이 구분이 해리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구조적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억압과 해리 모두 방어 기제이며 마음의 내용들을 의식으로부터 밀어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구분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억압에서는 수평 분리(즉, 가로로 상하 나누기)가 생기고 기존의 내용들이 무의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반면, 해리에서는 수직 분리(즉, 세로로 나란히 나누기)가 생기고 경험들이 나란히 존재하나 불연속적인 의식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

Hilgard(1977)의 이론은 해리가 발원하는 내적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의식의 수준에서는 동일하되, 분리된 구획이 있고, 각 구획에는 장벽이 있어서 절연되는 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음을 하나의 집에 비유한다면, 해리를 보이는 집들은 한 층이 서너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방과 방은 서로 통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의 오른쪽에서 ‘존재 2’가 ‘외상’이라고 덧붙여져 있듯이, 감당하기 힘든 경험과 상처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아픈 경험을 따로 떼어내서 절연된 별도의 방에 넣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수직 분리에 따른 의식의 단절은 외상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완충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분리와 해리

따라서 해리 증상이 발원하는 내적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서 ‘분리(splitting)’에 주목할 만하다. 본래 분리는 정신분석의 한 분파인 대상관계심리학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감정,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을 서로로부터 적극적으로 떼어놓은 무의식적 과정을 가리킨다.

분리는 생애 최초 몇 달간의 정서적 생존에서 초석이 된다(Ogden, 1986). 유아는 즐거움을 불쾌함에서 떼어내고, 사랑을 증오에서 분리해서 안전하게 별도의 정신적 방(mental compartment)속에 보관함으로써 부정적인 것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보존한다. 나쁜 것로부터 좋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쁜 것을 골라서 좋은 것들로부터 멀찌감치 떼어놓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측면을 ‘아들’, ‘친구’로 나누되, 아들의 측면에 대해서는 ‘착하다’, ‘순종적이다’ 등 긍정적 속성으로만 묘사하고, 친구로서는 ‘거칠다’, ‘까칠하다’ 등 부정적 속성으로만 기술한다면, 좋기만 한 모습(all good aspect) 대 나쁘기만 한 모습(all bad aspect)으로 자기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리된 자기 구조는 주로 경계선 성격 장애가 보이는 정서의 기복과 대인관계의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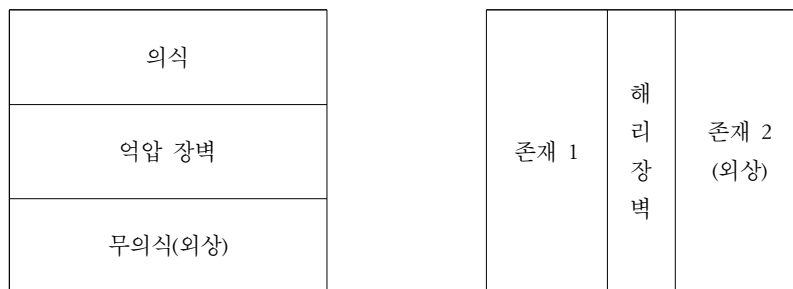


그림 1. 억압의 수평 분리(왼편)와 해리의 수직 분리(오른편)

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Kernberg, 1967, 1975). 그러나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 편집증 등에서도 내적 구조의 분리가 발견되며(Gabbard, 2000; Segal, 1964),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듯이, 해리 증상의 내적 출처로서 고려될 수 있다. Hilgard(1977)의 이론과 일치하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분리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finkle, 1989; Marmer & Fink, 1994). 해리형 기억 상실의 경우, 좋은 부분은 간직하고 나쁜 부분은 기억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분리해 낸다. 이밖에도 해리와 유사한 현상인 아동기의 상상속의 친구(imaginary companions)나 청소년기의 이인증(depersionalization)도 자기 표상의 방어적인 분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Myers, 1976).

종합하면, 해리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 변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바깥에서 주어진 강도 높은 스트레스인 외상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내부의 분리된 심리적 구조이다. 이 두 가지 변인은 서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상이 최초의 원인으로 자기 구조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분리와 같은 구조적 왜곡은 애초의 외상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해리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외상론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해리의 내적 요인으로서 구조적 특징을 탐색하려 한다.

자기의 구조적 특성의 지표로서 자기 복잡성

해리 증상이 분리된 구조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조

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의 내적 구조를 묘사하는 지표로 앞선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자기 복잡성(self complexity)인데(Linville, 1985, 1987),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르고 있다. 자기, 즉 나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며, 각 측면들은 다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자의 자기(self)는 ‘선생으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아버지로서의 나’, ‘잘난 나’, ‘못난 나’ 등의 여러 측면(즉, 모습)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측면은 다시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다. 가령 ‘선생으로서의 나’는 ‘책임감 있다’, ‘권위적이다’, ‘부지런하다’는 특징이 있을 테고, 반면 ‘남편으로서의 나’는 ‘의존적이다’, ‘미숙하다’, ‘게으르다’로 구성될 수 있다. 자기 복잡성 지표는 나를 구성하는 각 측면(측면 수)과 각 속성의 체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측면 간 중복 혹은 연결 정도)에 의해 정의된다. 자기를 구성하는 측면이 많고, 여러 측면에 걸쳐 속성이 중복되지 않을수록(즉, 측면 간 연결이 약할수록) 복잡성은 증가한다.

최근 연구 흐름에 따르면, 자기 복잡성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두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 즉, 자기 복잡성이라는 구성개념이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유인가(valence)에 민감함이 밝혀지고 있다(Rafaeli-Mor, Gotlib, & Revelle, 1999). 유인가에 따라 긍정 복잡성과 부정 복잡성으로 나뉘며, 둘은 적응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일관된 발견이다(Jordan & Cole, 1996; Morgan & Janoff-Bulman, 1994; Rafaeli-Mor & Steinberg, 2002; Woolfolk, Novalany, Gara & Allen, 1995).

긍정적 자기 복잡성은 스트레스 사건을 겪

은 후 완충 및 원기 회복 요인으로 작용하나,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은 반대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긍정적 복잡성이 높은 것은 외상의 영향을 완충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즉, 긍정적 자기 표상이 다양하며,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즉, 측면 수가 많고, 중복이 낮으면) 외상으로 야기되는 장기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Morgan & Janoff-Bulman, 1994). 반면에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높을수록 현시점에서 우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울 수준도 높게 예측되어서, 높은 부정적 복잡성은 우울의 취약성 요인임이 시사되었다(Woolfolk et al., 1995).

『해리의 방어적 분산 구조 = 높은 자기 복잡성』 가설

해리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분리된 자기 구조가 자기 복잡성이라는 지표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리의 분리 구조는 자기측면 간의 방어적 분산을 시사하므로, 자기 복잡성의 개념으로 분석하자면, 자기 측면의 수가 많고, 그 측면간의 연결(혹은 중복)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리 집단은 높은 자기 복잡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직 분리의 개념을 대입하면, 해리 경향이 있는 사람의 자기 측면들이 상호간에 절연되어 있을 것이므로, 자기 복잡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리 집단의 분리된 자기 구조는 높은 자기 복잡성으로 표시될 것이라는 예측이 성립한다.

이는 높은 자기 복잡성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Linville(1985, 1987)의 주장과는 일견 상반되는 가설이다. Linville

은 높은 자기 복잡성의 적응성을 주장하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복잡성이 오히려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복잡성의 순기능성과 역기능성을 가릴 수 있는 추가적인 측정치가 요구된다. 한 가지 방법은 당사자가 자기 측면의 복잡하거나 단순한 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 측면들이 전체로서 얼마나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지에 대해 평정하는 절차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자기 측면들 간의 조화 및 질서도 평정은 자기의 분리 대 통합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자기 복잡성 지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복잡성을 유인가에 따라 긍정 대 부정 복잡성으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흐름에 해리 장애를 대입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복잡성은 완충 요인으로, 부정적 복잡성은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발견이외에도 최근 부정적 자기 복잡성의 병리적 작용에 대한 보고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계선 성향의 대학생 집단, 편집 성향의 대학생 집단,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등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황성훈, 2007), 자기도취가 있으며 이를 숨기는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성훈, 2009).

따라서 부정적 자기 복잡성은 다양한 정신병리 집단의 취약한 자기 구조를 보여주는 진단적 지표로 주목받을 만하다. 자신을 구성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고, 상호간에 연결이 적을수록(즉, 별개의 부정적 측면으로 분산되

어 있을수록), 정신 병리에 취약한 구조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발견에 비추보면, 해리 장애도 높은 부정적 자기복잡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해리 장애가 높은 자기복잡성으로 표시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들의 방어적인 자기 분산 구조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더 강조되는 셈이다. 즉,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능하면 여러 개로 나누고, 이를 서로 무관하게 흩뜨려 놓는 배치가 해리 증상에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과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해리 증상의 가능한 외적 원인으로서는 「외상」가설

예언 1-1. 해리 경험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초기 외상을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가설 2. 해리 증상의 가능한 내적 원인으로 「구조적 분산」가설

예언 2-1. 해리 경험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 복잡성이 높을 것이다.

예언 2-2. 해리 경험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 측면간의 조화와 질서의 정도를 낮게 평정할 것이다.

예언 2-3. 해리 경험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관련 과목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강의로 듣는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해리 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발하였다. 선별 도구인 해리 경험 척도(Dissociative Experience Scale, 이하 DES)에서 상위 10%(총점 기준 83.7 점)를 해리 경향 집단(즉, 고 해리 집단)으로 선발하였고, 하위 10%(총점 기준 8.3점)를 통제 집단(즉, 저 해리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DES의 표준화와 임상적 절단점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으므로 충분히 높은 해리 성향을 가진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상위 10%를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된 피검자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통해 웹사이트에 마련된 자기 측면 검사에 응하도록 했다. 전산화된 자기 측면 검사는 피험자가 온라인상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응답하는 시스템으로서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표 1. 해리 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인구학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해리 경향 집단	통제 집단	차이 검증
연령(세)	33.30(7.97) [†]	35.27(8.04)	<i>t</i> (58)= -1.04
DES	115.13(22.92)	4.60(.10)	<i>t</i> (58)=26.32 ^{***}
남/녀	9/21	9/21	$\chi^2(1, N=60)=.00$

주. DES = Dissociative Experience Scale.

[†] 괄호는 표준편차임.

^{***} *p* < .001.

15~20분 정도였다. 최종적인 자기 측면 검사까지 모두 수행한 피험자는 해리 및 통제 집단이 각각 30명이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으며, $t(58) = -1.04$, ns , 남녀 분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chi^2(1, N=60) = .00$, ns .

측정 도구

해리 경험 척도(Dissociative Experience Scale)

Bernstein과 Putnam(1986)이 제작한 28문항의 척도로 정신과 환자 집단과 일반 집단, 그리고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이 겪는 해리 경험의 빈도를 측정한다. 문항들은 일상적이거나 병리적인 기억 상실, 이인증, 비현실감, 둘 이상의 인격체로 되는 느낌, 통증의 차단, 환청 등의 경험을 묻는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억 장애/주체성 변화' 요인, '해리성 몰입' 요인, '이인증/비현실감' 요인, '주의분산'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박제민 등, 1995). 내적 일관성 계수는 대상군에 따라 .90~.94 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96으로 보고되었다(Carlson & Putnam, 1992).

본래는 28문항에 대해 시각 유추 척도(visual analogue scale)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1점 척도('0% 경험함'은 0점, '10% 경험함'은 1점, '20% 경험함'은 2점, 그리고 '100% 경험함'은 10점으로 코딩됨)에 응답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표집인 380명의 대학생 집단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초기 외상 질문지(Early Trauma Inventory)

Bremner, Vermetten과 Mazure(200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외상 8개("자연

재해를 겪었다."), 신체적 학대 7개("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거나 걷어차였다."), 정서적인 학대 7개("욕설을 듣거나 쓸모없는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성적인 학대 8개("성관계 장면을 보도록 강요받았다.") 등 총 30개 문항에 대해 사지 선다형(경험한 적이 없다; 먼 과거에 경험하였다; 최근 3개월에 경험하였다; 먼 과거에도 최근 3개월 내에도 경험하였다)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과거에 경험한 횟수와 3개월 안에 겪은 횟수를 합하여 총 외상 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외상의 측정치로 분석하였다. 내용 범주에 따라 일반, 신체, 정서, 성적 외상 등으로 나누어서 집계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인 380명의 대학생 집단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기 측면 검사

Linville(1985, 1987)이 자기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신의 특성에 관한 카드 분류 과제를 지필형으로 변용한 것이 자기 측면 검사이다(황성훈, 2007). 선별된 6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측면 검사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피험자들은 검사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제시받았다:

다음은 나(자기)를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혹은 모습)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여러 측면(모습)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역할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분류할 수도 있고(예컨대, '학생으로서의 나'), 상황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분류할 수도 있

습니다(예컨대, ‘일할 때의 나’).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나눌 수도 있으며(예컨대,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나’), 특징을 중심으로 측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착한 나’). 그러나 역할, 상황, 영역, 특징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할 뿐이고, 나의 측면을 분류하는 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측면을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측면의 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두세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12개를 상한선으로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12개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에서는 자신의 각 측면을 40개의 속성 단어를 통해 묘사한다. 단어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각각 20개였고, 선행 연구(김윤희, 2001; 이수현a, 2005; 이수현b, 2005)에서 사용한 속성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구성했다. 피험자들은 자신의 각 측면에 해당하는 특성을 40개의 속성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첫 번째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에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40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측면에 대해 직접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40개의

단어를 꼭 훑어보면서 이중 첫 번째 측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고르며 됩니다. 개수에 관계없이 모두 골라서 옆에 있는 괄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다정하다	<input type="checkbox"/> 거만하다
<input type="checkbox"/> 낙천적이다	<input type="checkbox"/> 고집세다
<input type="checkbox"/> 매력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솔직하다
<input type="checkbox"/> 무능력하다	<input type="checkbox"/> 솔직하다
<input type="checkbox"/> 불쾌하다	<input type="checkbox"/> 친절하다
<input type="checkbox"/> 적극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소극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차갑다	<input type="checkbox"/> 신경질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착하다	<input type="checkbox"/> 솔직하지 못하다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자신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자신감 있다	<input type="checkbox"/> 우유부단하다

<input type="checkbox"/> 끈기있다	<input type="checkbox"/> 게으르다
<input type="checkbox"/> 똑똑하다	<input type="checkbox"/> 과민하다
<input type="checkbox"/> 여유있다	<input type="checkbox"/> 불안하다
<input type="checkbox"/> 책임감있다	<input type="checkbox"/> 신중하다
<input type="checkbox"/> 유머러스하다	<input type="checkbox"/>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즐겁다	<input type="checkbox"/> 충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차분하다	<input type="checkbox"/> 믿음직스럽다
<input type="checkbox"/> 의욕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활발하다
<input type="checkbox"/> 성급하다	<input type="checkbox"/> 매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부지런하다	<input type="checkbox"/> 편안하다

자신의 각 측면을 40개의 속성을 통해 묘사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피험자들은 자신이 묘사한 각 측면에 이름을 붙이고(예: ‘일반적인 나’, ‘내안의 또 다른 나’; ‘진정한 내 모습’, ‘보여 지는 내 모습’, ‘내면의 걱정’; ‘인간으로서의 나’, ‘학생으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 등), 이어서 위에서 적은 각 측면들의 관계를 두 개의 항목에 걸쳐 평정한다. 즉, 조화도(‘나의 측면들이 전체적인 나의 눈에서 볼 때 서로 조화로운 정도’)와 질서도(‘나의 측면들이 전체적인

나의 눈에서 볼 때, 정돈되고 질서 있는 정도')를 -3에서 +3에 이르는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다. 이는 자기측면간의 분리에 대한 보완적인 측정치를 얻기 위해 새로이 추가된 질차이다. 조화도와 질서도가 낮게 평정될수록, 자기 구조를 통합보다는 흩어짐과 파편화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측면 검사로부터 자기 복잡성 지표(H 계수)가 산출된다. H 는 본래 Scott(1969)의 인지적 공간에 대한 구조 모형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속성 분류 속에 내재해 있는 독립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40장의 카드를 주고 분류를 했는데, 3개의 측면이 구성되었다면 3×40 의 표가 만들어진다. 속성 중 하나인 '성실하다'가 측면 1에 들어있고, 측면 2와 3에는 없다면, '성실하다'의 각 측면에 걸친 유무 여부(이를 '집단 조합'이라고 부름)는 차례대로 '있다(1)', '없다(0)', '없다(0)'가 되며, 이 조합에서 '성실하다'의 수는 1이 되는데, 이것이 곧 소개할 공식에서 n (즉, i 번째 속성의 집단조합에서 그 속성이 등장하는 회수임)이다. 따라서 40개의 속성을 사용했다면, 모두 40개의 집단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H = \log_2 n - \sum (n_i \log_2 n_i) / n$$

n 은 총 속성의 수이며, n_i 는 i 번째 집단 조합에서 그 속성의 등장하는 회수임.

공식에서 주목할 것은 n_i 이다. 측면간의 중복이 적을수록(즉, 독립적일수록), n_i 는 작아지고, H 는 커지게 되므로, 결국 H 는 분류 속에 내재해 있는 독립 속성의 수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분

류된 자기 측면들에 걸쳐서 독립적인 속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H 는 0부터 $\log_2 n$ (40개의 속성을 사용했다면 5.31)사이의 값을 갖는다.

긍정 속성 20개만을 고려해서 H 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기 복잡성(positive self complexity)이다. 마찬가지로, 부정 속성 20개만을 고려하여, 부정적 자기 복잡성(negative self complexity)을 계산하였다. 긍정(혹은 부정) 복잡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자기 측면에 걸쳐서 긍정적(혹은 부정적) 속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즉, 별개의 특징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 과

외상 경험

최근 3년간 경험한 외상과 그보다 먼 과거에 겪은 외상을 합친 총 외상 측정치에서 해리 경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t(58)=3.60, p < .001$. 따라서 해리 집단이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었다. 범주별로 나누었을 때, 해리 경향 집단은 자연 재해와 같은 일반 외상, 언어적 폭력과 비난 등의 정서적 학대, 성추행 등의 성적 외상을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58)=3.18, p < .01$; $t(58)=3.94, p < .001$; $t(58)=2.37, p < .05$. 그러나 폭력 등의 신체적 외상에서는 해리 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t(58)=1.27, ns$. 즉, 두 집단은 최근과 먼 과거에 걸쳐서 한 두 번의 신체적 외상을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해리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외상 경험 회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해리경향 집단	통제 집단	<i>t</i> (58)
일반 외상	2.50(2.16) [†]	1.00(1.41)	3.18**
신체 외상	2.20(2.20)	1.56(1.59)	1.27
정서 외상	2.56(2.31)	.66(1.26)	3.94***
성적 외상	2.30(2.58)	.93(1.79)	2.37*
계(총 외상)	9.56(7.04)	4.16(4.23)	3.60***

[†] 괄호는 표준편차임.

* $p < .05$. ** $p < .01$. *** $p < .001$.

자기 복잡성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해리 경향 집단의 자기 복잡성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58)=2.42, p < .05$. 따라서 해리 경향 집단의 분리된 구조가 높은 자기 복잡성으로 나타나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었다. 해리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들이 다양하되 각 측면간의 연결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적 분리에 대한 보완적 측정치인 조화도와 질서도 평정에서 모두 해리 경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t(58)=-2.56, p < .05$; $t(58)=-3.20, p < .01$. 즉, 해리 경향 집단은 자신을 이루는 측면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조화롭지 않고, 질서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종합하면, 해리 경향 집단은 자신을 많은 측면으로 나누고,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묘사하나,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통합성(즉, 조화도와 질서도)은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해리 경향 집단의 높은 자기 복잡성은 건강한 분화보다는 의식의 분리와 단절에 취약한 분산적이고 파편화된 쉬운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자기 복잡성을 유인가에 따라 긍정 대 부정 복잡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해리 경향 집단이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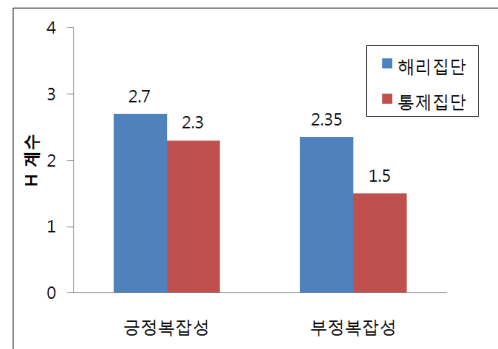


그림 2. 해리 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긍정 및 부정 자기복잡성 평균

표 3. 해리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자기 구조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해리경향집단	통제집단	<i>t</i> (58)
자기 복잡성(<i>H</i>)	3.05(1.11) [†]	2.42(.89)	2.42*
자기 측면 간 조화도 ^a	-.07(1.59)	.87(1.19)	-2.56*
자기 측면 간 질서도 ^a	-.33(1.42)	.73(1.14)	-3.20**

[†] 괄호는 표준편차임.

^a 조화도, 질서도는 -3에서 +3에 걸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함.

* $p < .05$. ** $p < .01$.

집단에 비해 긍정 자기 복잡성과 부정 자기 복잡성이 모두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긍정 복잡성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t(58)=1.61$, ns , 반면에 부정적 자기 복잡성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t(58)=3.41$, $p < .001$. 즉, 예측한 대로, 해리 경향 집단은 다양한 자기 측면에 걸쳐 별개의 부정적 속성들이 흩어져 표상되어 있는 구조(즉, 부정적 복잡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해리 증상의 외적, 내적 원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의식은 본래 연속적이고 응집력이 있으나, 이를 흩어뜨려 해리 증상에 이르게 하는 외적인 원인중 하나로 인간의 정상적인 경험 폭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자극인 외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리 경험을 자주 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해리 경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초기 및 최근의 외상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식 경험의 끊김과 분리를 유발하는 내적 원인중 하나로 분산적인 자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복잡성을 자기 구조의 분산화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리 경험이 빈번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측면을 다양하게 나누고, 각 측면간의 연결은 적은 특징을 보였다. 즉, 자신을 묘사하는 특징(예컨대, ‘유능하다’, ‘매력 없다’ 등)이 자기 측면(예컨대, ‘학생으로서의 나’, ‘연인으로서의 나’)에 걸쳐 독립적으로 표상되는 구조(즉, ‘학생으로서는 유능하다’, ‘연인으로서는 무능하다.’ 등)였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기 특성의 유인가에 관계없이 나타나되, 부정적인 특성에서 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양상이었다. 즉, 해리 집단의 내적 구조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단점, 결함, 상처 등)들을 가능하면 여러 개로 나누고, 이를 서로 무관하게 흩뜨려 놓는 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해리 경향 집단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된 자신의 측면들에 대해 전체로서의 조화와 질서가 떨어진다는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해리 집단은 자기 복잡성의 정도가 보통보다 높되, 그들은 이를 전체로서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화와 질서가 부족한 흐트러짐과 파편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해리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구조의 분리와 분산은 순기능적 대처 자원이기보다는 역기능적인 취약성 요인에 가까웠다.

해리는 외상에 대한 부적응적 방어

의식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통합성이 갈라지는 해리 증상은 외상 경험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Carlson & Rosser-Hogan, 1991; Chu & Dill, 1990; Putnam et al., 1986; Ross, Norton, & Fraser, 1989). 이와 일관되게, 본 연구의 결과도 해리 현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초기 및 최근 외상 경험의 빈도가 높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한편, 외상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정서적 외상, 일반적 외상, 그리고 성적 외상에 대한 노출은 해리 경향 집단에서 두드러지나, 폭력이나 가혹한 체벌과 같은 신체적 외상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각종 외상 경험에서 해리 경향 집단이 약 2회 정도이고

통제 집단은 약 1회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유독 신체 외상에서는 통제 집단이 1.56회로 상승하였다(표 2 참조). 즉, 신체 외상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통제 집단이 다른 외상에 비해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용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만 하다.

해리와 외상의 밀접한 연계성은 “해리는 외상적 경험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어의 하나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증상이자 방어기제로서 해리는 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해주고, 외상이 유발하는 불안과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극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 특히, 해리 장애의 대표적인 형태인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아동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창출한 결과이며(Putnam et al., 1986, 1991), 대체 자아(alter ego)는 극도로 괴로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기 때의 자기최면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Bliss, 1984). 이러한 점에서 해리 증상은 초기 외상으로 유발된 아동기의 발달적 장애로 이해할 수 있으며(Horevitz & Loewenstein, 199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piegel, 1984).

그러나 해리는 일종의 회피이므로, 외상과 관련된 정보 및 정서의 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관련 스트레스를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Briere와 Runtz(1988)에 따르면, 성 피해 아동들은 해리 방어를 사용해 고통을 차단하지만, 해리는 위협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피하는 능력을 방해하므로, 이들이 또다시 외상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영속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방어기제이자 증상으로서 해리

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기는 하지만, 경험에 직면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훈을 얻는 학습의 기회를 배제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자기 패배적이고 부적응적인 방어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높은 자기 복잡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인가? 취약성인가?

자기 복잡성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을 제안한 Linville(1985, 1989)에 따르면, 높은 자기 복잡성은 적응적인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복잡한 구조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해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구조적 복잡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주어지는 성공이나 실패 피드백에 반응해서 더 크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분의 변화 진폭이 더 컸다(Linville, 1985). 복잡한 구조가 정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자기 측면의 수가 많으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진 충격을 여러 가지 측면중 하나로 국한시킬 수 있고, 각 측면들 간의 중복이 적으므로(즉, 연결 통로가 약하므로) 부정적 여파가 다른 측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여성이 자신을 ‘엄마’, ‘아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둘 모두에서 ‘따뜻하고’, ‘양육적’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B라는 여성은 자신을 ‘엄마’, ‘부인’, ‘교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엄마로서는 ‘양육적’이고, 부인으로서는 ‘독립적’이며, 교사로서는 ‘유능하다’고 각각 다른 속성을 제시한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예: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를 겪는다면,

누가 더 잘 견딜지를 자기 복잡성에 따라 예측해 볼 수 있다. A는 자기 측면이 더 적고, 속성이 중복되므로, 자기 복잡성이 낮은 경우이다. 그래서 아들의 상실은 자신의 1/2에 해당하는 엄마로서의 측면에 충격을 줄 것이고, 이는 중복 속성의 연결 통로를 타고 아내로서의 측면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다. 반면 B는 자기 측면이 더 많고, 상호 독립적이므로, 아들의 상실을 1/3에 해당하는 엄마로서의 측면으로 받아낼 것이고, 연결통로가 없으므로(즉, 측면 간 속성의 중복이 없으므로) 그 충격을 자신의 1/3 영역에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뤄지되 각 모습간의 연결 고리가 약한 자기 구조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높은 자기 복잡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을 자신의 1/n로 국한시켜 감당하는 일종의 완충장치(shock absorber)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조명하는 것은 완충 장치가 항상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아동기에 발생한 초기 외상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분산적인 자기 구조는 해리 증상을 일으키기 쉬우며, 장기적으로는 재외상화를 부르는 취약성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해리 경향자들이 보이는 흩어지기 쉬운 자기 표상, 즉 파편화의 위험이 있는 자기 구조는 높은 자기 복잡성 구조가 갖는 완충 기능이 적절한 선을 넘어 오용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예에서, B 부인은 상실 경험을 견디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반대편에는 자신의 분화된 여러 모습을 묶어주는 통합의 연결 끈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

외상 경험의 희생자는 그 부정적 경험이 자신의 온 우주를 규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무력감과 수치심이 자신의 전체 자아를 물들

이게 할 수 없다. 실제로 과잉 일반화하기보다는 자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와 외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Morgan & Janoff-Bulman, 1994). 이러한 자기 구조 분산화의 극단적인 형태중 하나가 바로 해리일 수 있다.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 끈이 느슨해진 배경에는 고통의 완충이라는 사연이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해리에 대해 제시하는 해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해리는 상처의 아픔을 진통하기 위해 마치 분신술(分身術)처럼 복잡한 자기 분산화를 시도했으나, 그 대가로 통합을 희생하며 파편화되는 경우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해리 증상의 외적, 내적 원인으로 각각 가정되는 외상과 자기 구조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적 요인으로서 외상,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서 높은 자기 복잡성이라는 양대 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병의 확률이 높아지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해리 및 외상 경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조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측면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기 측면 검사를 최종 선별된 해리 및 통제 집단에게만 실시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리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해리 경험 척도의 양 극단값(상하위 10%)을 사용했다. 정신 병리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 병리의 극단 집단을 실험 및 통제 집단으로 사용하는 관례에

다른 것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높은 해리 성향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낮은 해리 성향에 기인하는지에 관한 해석적 애매함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리 경향의 정도에 따라 자기복잡성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규모 상관 연구가 요구된다. 대규모 표집에 대해 증상 측정치(해리 경험)와 내적, 외적 원인 변인(외상, 자기 복잡성)의 측정치를 확보한다면, 두 가지 원인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해리 경험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만약 높은 외상과 높은 자기복잡성의 조합이 해리 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해리는 외상(요인 1)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 구조의 방어적 과잉 분화(요인 2)에 기인한다.”는 현재의 잠정적인 연구 가설(즉, 해리에 관한 이요인 이론)은 더 분명하게 타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리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 복잡성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해리 집단의 역기능적 분산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대안적인 측정치를 향후 연구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 그 측정치는 ‘자기 개념 분화(self concept differentiation; 이하 SCD)’ 지표인데(Donahue, Robins, Robert, & John, 1993; Lutz, & Ross, 2003)인데, 이는 자기 개념이 갈라지고 파편화된 정도(divided self and fragmentation), 즉 자기 개념의 통합이 빈약한 정도를 측정한다. SCD는 정신병리 측정치와는 정적 상관이, 건강한 적응 측정치와는 부적 상관이 발견되어서, 해리 집단이 보이는 역기능적인 자기 분산 구조를 더 적절히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또다른 점으로 해리 집단이 높은 자기 복잡성을 보인다는 현 상태에

대한 정적(靜的)인 기술에 그쳤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임상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분산화된 자기 구조가 일상 생활속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동적(動的) 이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외상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트레스 및 생활 사건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해리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분산화된 구조가 스트레스에 동반되는 부정적 정서를 단기적으로는 완화해 주나,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지속시킨다는 점을 종단적인 설계를 통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리적 자기 분산 구조의 작용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준임상 표집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리 장애를 가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희 (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복잡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제민, 최병무, 김명정, 한홍무, 유승운, 김성환, 주영희 (1995). 한국어판 해리경험척도의 표준화 연구. *정신병리학*, 4, 105-125.
- 이수현a (2005).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완벽주의 패턴과 자기 지식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현b (2005). 자기 복잡성과 자기 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2009).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

- 기 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에
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2008년도 한국
연구재단 신진교수 지원사업 보고서.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rnstein, E. M., & Putnam, F. W. (1986).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dissociation sca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 727-735.
- Bliss, E. L. (1984). Spontaneous self-hypnosis in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7, 135-148.
- Bremner, J. D., Vermetten, E., & Mazure, C. M. (200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hildhood trauma: The Early Trauma Inventory. *Depression & Anxiety*, 12, 1-12.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2, 331-341.
- Carlson, E. B., & Putnam, F. W. (1992). *Manual for the Dissociative Experience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Carlson, E. B., & Rosser-Hogan, R. (1991). Trauma experiences, posttraumatic stress, dissociation, and depression in Cambodian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548-1551.
- Chu, J. & Dill, D. L. (1990). Dissociative symptoms in relation to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887-892.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Gabbard, G. O. (2000).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Garfinkle, E. (1989). Remembering and repeating in multiple personality.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4, 169-181.
- Hilgard, E. R. (1977). *Divided consciousness: Multiple controls in human thought and action*. New York: Wiley-Interscience.
- Horevitz, R. & Loewenstein, R. J. (1994). The rational treatment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In S. J. Lynn & J. W. Rhue. (Eds.), *Dissociation: Clin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pp. 289-316). New York: Guilford.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s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30-540.
- Kernberg, O. F. (1967).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 641-685.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Linville, P. W. (1985). Self 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 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Lutz, C. J., & Ross, S. R. (2003). Elaboration versus fragmentation: distinguishing between self-complex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 537-545.
- Marmer, S. S. & Fink, D. (1994). Rethinking the comparison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 of North America*, 17, 743-771.
-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 complexity: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63-85.
- Myers, W. A. (1976). Imaginary companions, fantasy twins, mirror dreams and depersonalization. *Psychoanalytic Quarterly*, 45, 503-524.
- Ogden, T. H. (1986). *The matrix of the mind: Object relations and psychoanalytic dialogu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Putnam, F. W. (1991). Dissociative phenomena. In A. Tasman & S. M. Goldfinger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Vol 10. (pp.145-16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Putnam, F. W., Guroff, J. J., Silberman, E. K., Barban, L., & Post, R. M. (1986). The clinical phenomenology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Review of 100 recent ca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 285-293.
- Rafaeli-Mor, E., Gotlib, I. H., & Revelle, W. (199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341-356.
- Ross, C., Norton, G., & Fraser, G. (1989). Evidence against the iatrogenesis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Dissociation*, 2, 61 - 65.
- Segal, H (1964).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Melanie Klein*. New York: Basic Books.
- Spiegel, D. (1984). Multiple personality as 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7, 101-110.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 Allen, L. A.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 원고접수일 : 2010. 4. 28.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6. 4.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6. 29.
게재결정일 : 2010. 7. 20.

The Self-structure of Dissociation-prone Persons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university

'Dissociation' means the disconnection or separation of consciousness, which should be and remain continuous and integrate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of dissociation; the disorganization of mind. We supposed trauma, overwhelming a person's coping ability, to be the external cause and a self-structure with high self-complexity and independently split self-aspects to be the internal cause. To demonstrate this hypothesis, we used the Dissociative Experience Scale to select a dissociative-tendency group and a normal control group from 380 university students taking online and/or offline psychology courses. Then, we administered the Early Trauma Inventory to the participants and we also administered Self Aspect Test to measure self-complexity. These results revealed that dissociative-tendency group have experienced more diverse early trauma than control group. The dissociative-tendency group reported having suffered more emotional, general, and sexual trauma but not more physical trauma than the control group reported, which supported the prediction that trauma functions as the external cause of dissociation. Furthermore, upon measuring self-structure, we found the dissociative group showed greater self-complexity than the normal control group did. They, however, regarded their complex divisions as disharmonious and chaotic mess. In other words, a dissociative group member's great self-complexity indicates the over-division of a less integrated self, which suggests a split self-structure is the internal cause of dissociation. The dissociative group's extraordinary self-complexity seems to be a kind of buffer limiting the shock of a trauma to one part of the self. In conclusion, we understand dissociation to be a phenomenon for over-dividing the self-structure and buffering the shock of any trauma, at the cost of integrity. We conclude with the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Key words : dissociation, trauma, self complexity, splitting, self structure